

## 통산부, 美 FAA와 항공기 수출협정 본격 추진

통상산업부는 항공기 및 동부 부품의 수출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외국정부와 수출협정을 체결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통산부는 외무부, 건교부 등 관련 부처의 협조를 얻어 동 수출협정의 총괄조정 역할을 담당키로 하고 우선 미국과의 수출협정을 체결키 위해 지난 10월 24일 美연방항공국(FAA)에 수출협정 체결 의향서를 발송했다.

이건우 기초공업국장 명의의 同 의향서에서 통산부는 국내 항공산업의 현황과 항공산업 분야에서의 韓·美간 협력, 우리의 중형항공기사업 등에 관해 언급하고 韓·美간 항공기 등의 수출협정 체결 의사를 강력히 피력했다.

또한 통산부는 동 BAA 체결과 관련한 현안사항을 논의키 위해 조만간 방문단을 구성, 美 FAA에 파견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완제거나 부품 등 항공산업 제품의 수출을 위해서는 수입국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및 감항증명(Airworthiness

Certification)을 받아야 하는데, 많은 국가들에서 이를 위해 수입국·수출국간 항공기 수출협정 체결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BAA(Bilateral Airworthiness Agreement)가 이에 해당, 대부분 국가들이 이를 국가간 협정체결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특히 미국은 BAA 미체결 국가에서 설계, 생산된 항공기 등에 대해서는 형식증명을 내주지 않고 있으며, 형식증명이 없는 항공기 등의 도입 및 운항 등을 불허하고 있어 사실상 대미수출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는 실정이다.

## 통산부, 산업기술하부 구조 확충에 적극 노력

통상산업부가 기술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산업기술하부구조확충5개년계획(안)을 마련하고 지난 10월 30일(月) 공청회를 가졌다.

동 계획(안)은 냉전종식 및 WTO 체제 출범 등 국제경쟁여건 변화 및 기술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신경제5개년계획 중 기술개발전략부문 계획을 효과적으

로 추진키 위해 지난 '94년 제정된 공업 및 에너지 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마련하게 된 것으로서, 여기서 기술기반 조성이란 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정보·연구설비 등의 기반과 환경을 정비 보강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확산을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연구인력, 공동연구시설, 산업표준화, 중소기업혁신능력 지원, 기술정보 확산 및 국제기술협력 등 기술기반의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하여 신경제 5개년 계획 수립 이후 범정부적으로 기술인프라의 확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동 계획을 적극 추진하여 계획이 완료되는 2000년까지 선진국형 기술하부구조를 조성하여 연구개발의 생산성과 산업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산부는 순차적으로 ▲튼튼하면서도 유연성 있는 기술하부구조를 확충하고 ▲산업기술이 우리 손으로 개발 확산 혁신될 수 있도록 민간주도의 국가기술혁신체를 구축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

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기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항공우주산업 분야에서는 항공우주협회에서 제출한 항공우주산업 종합전망 구축(산업정보 확산 사업), 기계연구원(KIMM)의 항공우주재료 공동연구단지 조성(산 학 연 공동연구 기반 확충 사업), 경상대의 韓·日 지방간 항공기 부품 및 소재 관련 기술협력(국제기술협력 사업) 등 3개 사업계획이 1차 추진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 통산부, 기계소재산업 육성방향 발표 중형항공기 50% 국산화

통상산업부 이천우 기초공업국장은 11월 23일 상공회의소가 마련한 조찬간담회에서 기계소재 산업 현황과 육성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특히 중형항공기 개발사업과 관련 부품국산화를 위해 더 많은 업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국장은 주제발표에서 일반 기계산업, 메카트로닉스산업, 광산업, 철강산업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각 부문별 산업현황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앞으로의 발전 전망과 경쟁력강화방안을 제시했

다. 기계산업 생산액은 연간 67조 원으로 전체 제조업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나 수출은 전체 제조업의 60%, 수입을 135%로 무역역조가 심한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공기산업과 관련하여 항공기산업이 21세기는 우리의 중요한 돈벌이가 될 것이므로 Risk와 막대한 자금부담 등 진입장벽에도 불구하고, 2005년까지 세계 10위권으로 진입시키기 위해 중형항공기와 KTX-2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항공산업의 전문계열화는 이와같은 정부 추진사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항공기산업 육성을 위해 품질인증체제를 확립하고 소재부품산업 육성, 항공산업단지조성 지원 등 각종 육성정책을 펼침을 강조했다.

중형항공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합작파트너인 중국과의 협상이 12월중 매듭지어질 것이며 선진제3국 협력파트너도 조만간 선정될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나라의 작업분담량의 50%를 국산화할 계획이므로 현재의 중형항공기사업조합원 35개사 외에 더 많은 기계 소재업체가 사업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 항공심 보고서 채택 일통산성 내년 정책위해

일본 통산성 항공기산업관련 자문기관인 항공기심의회(회장 : 이이다 요타로, 미쓰비시중공업상담역)는 내년도 항공기산업관련 정부예산 요구를 위한 정책보고서를 채택, 통산성 당국에 제출했다. 다음은 동 보고중 계획추진 관련 정책심의보고 내용이다.

▲ YS-X계획 : 일본이 독자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70~120석급의 중소형 민간수송기 개발추진을 100석급 여객기의 세계적 수요는 확인되고 있지만 중국의 참여문제, 엔화의 급격한 상승, 항공사의 경기회복 지연등의 이유로 충분한 사업성의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향후 다시 검토키로 한다.

▲ 소형 민간여객기용 엔진개발 : 70석급의 소형 민간여객기용 엔진의 국제공동개발에 30%의 비율로 참가한다. 일본은 동엔진의 고압 압축기 부분의 개발을 처음으로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V2500엔진 개발을 통해 얻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걸음 전진할수 있는 뜻있는 주도적 개발사업으로 평가된다.

1998년 가을에 형식승인을 받아 1999년 가을부터 실용화하며 기체에 탑재 취향예정이다.

▲ B777개발 : 미국 보잉사와 공동개발한 B777기는 일본이 21%를 담당하였고 일본 항공사들의 도입 취향도 순조로워 파생형기의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초고음속수송기(SST) 개발 : 21세기초에 국제공동개발이 추진될 것에 대비 일본의 항공기 제작기술의 향상과 유지를 위해 국제교류를 확대하는등 동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 지역항공용 헬기개발 : 도시내의 헬기포트에서 발착이 가능한 소음이 적은 커뮤터 헬기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삼원항공 항공기생산 사업 신고 수리

통상산업부가 삼원항공(주)(대표이사 문기수)의 항공기 및 부품 생산사업 신고를 수리하였다. 이에 따라 동 사는 새로이 초경량항공기 및 착륙장치, 동체, 날개 등 부품 제조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삼원항공은 초경량항공기 내수공급 및 수출을 목표로 설립된 업체로서 제작사업 이외에 비행학교, 행사지원 등의 용역사업과 오피판매업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기도 양평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美 Sky Star Aircraft 社の Fox Classic IV 기종을 우선 생산할 예정으로 있다.

삼원항공이 생산사업 신고를 필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항공기 생산업체는 기존의 한국경비행기(주) 등을 포함, 모두 8개 업체로 늘어났다.

## 통상부, PC 통신서비스 개설

통상산업부는 對국민 서비스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11일(水)부터 PC통신 나우누리를 통하여 통상산업부 마당을 개설, 운영을 시작했다.

통상산업부 마당에는 각 과별 주요업무, 민원업무의 담당과 등 전반적인 안내와 통상산업 뉴스가 제공되며 통상/무역, 자원/에너지, 산업, 중소기업 등 분야별로 매주간의 산업동향과 통상부의 고시 공고 등도 발표 즉시 제공된다.

또한 통상부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을 시는 통상산업 관련 질의 응답을 이용할 수 있고, '통상산업부에 바란다' 코너에서는 정책제안도 할 수 있다.

## 통상부, 제조업분야 CALS 구축 추진

세계적으로 CALS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통상산업부에서도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조업 분야 CALS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통상부는 11월 24일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정해주 차관보 주재의 조찬간담회를 열고 특허청 정보자료국장, 공업진흥청 표준국장, 통상부 산하 정부투자기관 부사장, 업종별 단체 상근부회장을 초청 제조업계 CALS 추진방안을 밀도있게 논의했다.

회의결과 CALS체계를 조기에 도입, 추진하기 위해서는 CALS의 수요자인 제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 "한국 CALS협회"의 설립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동 협회의 설립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 인사

통상산업부 기초공업국 항공우주공업과(95. 11. 2)

< 전임 >

서기관 김무영

< 전출 >

사무관 박태훈